

5/26(목) 욥기 15-19장 재난을 주는 위로자

㉔-1 엘리바스(두 번째 말, 15장)

엘리바스는 이번에도 경험과 경륜을 앞세웁니다(15:8-10,18).

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하는 욥이 못마땅합니다(15:12-13).

믿음 없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여깁니다(15:3-4, 12-13, 20).

하나님의 위로, 약속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는가(15:11),

혼자만 당한 고난처럼 왜 유난을 떠는가, 비난하며 꾸짖습니다(15:7).

엘리바스는 <조상들, 지혜자들의 말을 들으라>며 권합니다(15:17-18).

욥을 악인,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정죄하며(15:20,25,31)

그러한 자들이 맞는 험악한 결과에 대해 피력합니다(15:20-24,28-35).

㉔-2 빌닷(두 번째 말, 18장)

빌닷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(18:2-4).

빌닷 역시도 욥을 악인, 불경건한 자로 간주하고 정죄합니다(18:5).

그러한 자들의 일반적인 결국을 나열하며 욥을 훈계합니다(18:5-21).

선의로 시작된 위로는 책망과 정죄,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.

욥은 고난과 공격들에 묵과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(16:6-16).

친구들은 형편없는 상담자이며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(16:2).

그들은 변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(16:1-5, 17:10, 19:2-6, 19:28-29).

욥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요, 투명인간처럼 되었습니다(19:13-20).

욥은 친구들에게 차라리 멈춰달라고 호소합니다(19:21).

<하나님,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? >(16:7-9,11-12,14, 19:6,8-12).

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신원을 호소합니다(16:17-17:9).

의로우신 재판장, 구속자(고엘)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뵈기 원합니다(19:23-29).

욥은 캄캄한 밤이라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꼬옥 잡습니다.

나는 위로합니까, 논쟁합니까?

① 선의로 시작한 위로가 정죄와 훈계로 바뀌지 않습니까?

② 신앙(말씀)으로 위로합니까, 신앙(말씀)으로 논쟁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욥기 15-19장